

흥년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본문: 창세기 26:1-1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FkRiv5oM7lk?si=qoUPXN0zHgDze3fW>(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의 인생에는 예고 없이 흥년이 찾아옵니다. 재정의 흥년, 건강의 흥년, 관계와 자녀의 흥년이 우리 삶을 덮칩니다. 이때 세상은 아주 합리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원이 풍부한 애급으로 내려가 위기를 탈출하라고 부추깁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경고합니다. 비록 척박해 보일지라도 언약의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흥년을 이기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본문의 이삭도 흥년의 두려움에 쫓겼습니다. 결국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실패를 저지릅니다. 자칫 구원자가 오실 언약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아찔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개입하셔서 그 부끄러운 실수를 완벽하게 수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부끄러운 실수조차도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나의 온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치명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취소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흥년의 두려움 속에 넘어지셨습니까? 나의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앞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능함을 위대하심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단한 언약의 땅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관찰]

1. 흥년을 맞아 애급으로 가려던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창 26:2)
2. 이삭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거짓말하였습니까? (창 26:7)

[삶의 적용]

1. 내 삶에 닥친 흥년(재정, 건강, 관계 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애급)을 쫓아 가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2. 나의 연약함과 치명적인 실수조차도 수습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내가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할 '언약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의 기도]

내 삶에 찾아온 흥년 앞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실패조차도 생명의 은혜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앞드리게 하옵소서.